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0호 【루계 제25108호】 주체10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고결한 신념과 량심으로 받드는 참된 과학자, 교육자가 되자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는 문명과 번영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신화가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태양이 빛나는 눈부신 하늘가에 우리의 비행기들이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서는것과 같은 세기적변혁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되고 있는것이 내 나라의 자랑찬 현실이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의 참모습은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의 힘있는 과시이며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패의 국력의 억센 기둥이고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기관차이며 주체교육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초석이고 밑뿌리이다.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만천하에 힘있게 떨쳐진 과학기술의 힘, 주체적력량의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앙양된 기세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활력을 부어주고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과학과 교육을 언제나 중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은 과학과 교육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비약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아끼고 내세워주신 우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존엄과 지위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면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고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것, 과학기술발전에서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는것,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며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일떠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인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은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는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숭고한 경륜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축도이고 결정체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과 교육을 국가발전의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내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고 그에 토대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견인력과 감화력이 비할바없이 승화되고 혁명의 전진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는 지금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가 되고 견인기가 될것을 절실히 바라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은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과학과 기술로 결사옹위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 개척자, 척후병들이다.

오늘 우리 당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놓여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이며 수령님들의 평생념원을 활짝 꽃피워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앞당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혁명의 교과서로, 만능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번영의 씨앗들이 풍만한 결실을 맺게 하려는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에 맥맥히 흐르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자면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높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어야 한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애국과학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집행해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의 존엄과 영예를 값높이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높은 과학연구성과, 교육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앞장서야 할 자력갱생의 선구자, 최첨단돌파전의 전초병들이다.

오늘 우리가 벌리는 투쟁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며 우리를 고립압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최상의 행복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이 보람찬 투쟁의 성과여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고 그 위력은 다름아닌 강성국가건설의 가장 힘있는 력량인 과학교육인재들의 정신력에 달려있다.

얼마전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하전동차의 성과적인 시운전을 통하여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야 한다는것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지하전동차개발자들의 투쟁정신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영웅적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만 발동되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수 있고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자는 자력갱생의 강자, 과학기술의 강자이며 치렬한 국력경쟁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비결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있다.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남에 대한 의존심,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과 같은 위험한 사상적병집에 어차피 빠져들게 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지니고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더없이 중대하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선군조선의 독점물로 만들겠다는 높은 목표와 만만한 투지를 안고 최첨단과학의 요새를 부단히 점령해나갈 때 우리의 국호는 세계만방에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백두산대국은 모든 면에서 강성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리상과 무한대한 창조의 세계의 철저한 체현자가 되여 원수님과 뜻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억세여지는 신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의 품, 우리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과학교육인재들의 귀중한 삶의 품이며 그 품에서만 우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재능도 열정도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것이다. 과학탐구의 길은 여러갈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의 삶과 투쟁의 좌표가 있고 모든 승리와 성과의 비결이 있다.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애국헌신의 세계, 원수님의 높으신 지성의 세계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말아 실현한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몸이 열두쪼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열백밤을 패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사랑과 은정에 고마움의 눈물만 흘릴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는 당의 구호를 신념과 량심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는 과학교육성과를 한가지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내놓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은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앞에 나서는 최우선적인 과업이다.

오늘 당에서 강조하는바와 같이 현대화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국산화이다.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이고 참된 과학자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면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못할 최첨단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주체적인 공업토대를 반석같이 다지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대화와 지하전동차개발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본때, 투쟁기풍으로 온 나라에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긴장한 전력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에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보내줌으로써 사회주의협동벌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과학기술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남들이 10년동안 이룩한것을 1년동안에 우리의것으로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는 지금 천만군민의 심장을 용암마냥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를 빛나게 실천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맡고있는 몫은 대단히 크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내세운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푸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몫 단단히 할것을 바라고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관철하자고 하여도,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앞세워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신념과 량심, 실력으로 받들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고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명예나 학위학직보다도 인민의 커가는 기쁨과 행복에서 삶의 보람, 과학탐구의 보람을 찾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과학자의 깨끗한 지성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며 당의 새세기 교육혁명방침을 관철하는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교육자들이다.

모든 교육자들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장래가 바로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누가 보건말건 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충정을 다 바쳐나가는 참된 애국자, 열혈의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교육부문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의 교육자들이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앞장서며 자기 단위를 모든 면에서 본보기단위로 일신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정치사상과목교수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학생들속에서 5대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를 숭고한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얻은 경험을 살려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그것이 실지 교육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데 교육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교육자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인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자들은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최근년간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 연탄군과 태탄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 단위들의 사업경험은 당조직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지고 잘 밀어줄 때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제일먼저 로동당만세를 부르고 그들이 마련한 탐구와 헌신의 소중한 열매들이 온 나라를 꽉 채워 인민이 부르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과학교육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사업의 결과가 다름아닌 과학연구성과와 후대교육사업성과로 나타난다는것을 명심하고 정책적지도를 잘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이 알찬 열매들을 내놓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전사회적으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주며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이 사회적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청년과학자, 청년기술자, 청년교육자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당의 사랑과 믿음속에 미래과학자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입사한 인재들속에는 청년과학자, 청년교육자들도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 두뇌류출이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지식인의 신념보다 몇푼의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황금나비》들이 생겨나 골치거리로 되고있을 때 청년과학자, 청년교육자들이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혁명인재,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준비되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밝은 전도를 그려보게 하는 또 하나의 힘있는 담보이다.

청년과학자, 청년교육자들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미래가 자기들에게 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꿈과 열정으로 불타는 청춘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 교육성과를 하나라도 더 내놓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밤을 지새며 분투하는 열정가가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에게 지워진 시대적사명감은 참으로 무겁고 책임적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자들은 당과 수령의 기대와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의 힘찬 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가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열정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지하전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수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오영재, 3가공직장 초급당비서 김정철, 부기사장 김철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돌아보시며 시운전을 진행할 때 자신께서 꼭 타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난 11월 19일 몸소 평양지하철도의 개선역에 나오시여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게 된것은 온 나라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고무적인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평양지하철도에서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들이 달리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하전동차의 계렬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기업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지하전동차를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겨안고 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지하전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들을 위해 남기신 수많은 사랑의 유산들중의 하나인 평양지하철도에서 우리의 지하전동차들이 달리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드높이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더욱 다그쳐 첨단기술이 도입된 세계적수준의 각종 차량생산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 들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여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우리의 지하전동차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차량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많은 대상설비들과 대형부분품 생산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많은 대상설비들과 대형부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권양기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사슬콘베아직장에서는 생산공정별에 따라 기능공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생산품들의 질을 높이였다. 마광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타닝반을 비롯한 기대관리와 보수정비를 잘하여 조립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특히 권양기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10여종에 달하는 수많은 부분품들의 정밀도를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주물직장에서는 축받치개와 베아링집을 비롯한 주물품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콘베아직장, 공작기계직장, 유압직장을 비롯하여 보장설비생산을 맡은 직장들과 소재보장을 담당한 단위들은 물론 가스발생로제작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제관, 마광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식의 새로운 가스발생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관직장에서는 수십일은 걸려야 한다고 하던 대상설비의 제관품생산을 한주일동안에 해제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조업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주강직장의 로동자들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전극프레스의 기술개건에 필요한 대형부분품생산을 훨씬 앞당겨 전극프레스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 대상설비와 대형부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년간 비로도, 담요생산계획 앞당겨 수행

박천견직공장에서

박천견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년간 비로도, 담요생산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공장일군들은 올해초부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형식과 틀이 따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에 넘쳐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1.4분기간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년간계획수행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공장일군들은 직장별, 작업반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된 결과 지난 시기 엄두도 내지 못했던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였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거나 광택전모기 열다림로라, 날염벨트, 문직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살려내여 증산의 동음을 힘있게 울리였다. 설비가동률이 부쩍 높아지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졌다.

담요직장, 비로도직장의 로동계급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2.4분기부터 일정계획을 1.4배이상 넘쳐 수행하며 전진하였다.

염색가공직장의 로동자들도 생산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열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합리적인 염색가공방법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년간 비로도, 담요생산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끝낸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하다.

다시한번 분발하여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생산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오늘도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배무이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이자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에 그 어떤 신비한 공식이 따로 있은적은 없었다.

하나에서 백천까지의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창조하고 비약하여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한 행로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력사이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를 때마다 우리 인민은 그 눈부신 비약의 력사를 뜨겁게 되새겨본다.

민족의 슬기와 용맹성의 증견자와도 같은 뜨락또르와 전기기관차를 볼 때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는 사상감정은 과연 무엇이던가.

우렁찬 고고성을 울리며 첫 뜨락또르며 자동차, 굴착기, 불도젤들이 달리고 그에 뒤이어 현대공업의 정수인 전기기관차가 우렁찬 동음을 울리던 그날 제손으로 만든 동무들이 좋다면 좋은것이요, 붉은기라고 합시다라고 하시며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달아주시던 우리 수령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는 공업력사가 짧기때문에 전기기관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전기기관차를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오늘도 뜨겁게 메아리쳐오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과 최첨단돌파의 기개를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영광의 력사가 빛나는 련합기업소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남들이 10년동안에 한것을 1년안에 하여 세계적수준으로 도약하려는 열의가 온 나라에 활화산처럼 타번지게 해주신 일대 력사적사변이다.

* *

조국은 말과 구호로 사랑할수 없다.

애국중 가장 위대한 애국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된 자각이며 자기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걸음걸음이 말그대로 전대미문의 시련을 이겨내는 길이였다.

빈터우에서 일떠서야 하였고 시시각각 고난의 얼음장을 까부시며 가야 하는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던가. 아니다.

익측도 후방도 없었다. 믿은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불타는 영웅적로동계급과 애국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기적을 창조하여 세계를 들었다놓은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대한 력사를 소중히 안고 살아야 한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여 우리 농촌에서 새 생활이 약동하던무렵의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함경남도의 한 협동농장에서 농민들과 담화를 하신 일을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사짓는데서 무슨 애로가 없는가고 거듭거듭 물으시자 자리에서 수줍게 일어선 한 녀성농장원이 녀성들이 머리우에 임을 이고 다니는것이 좀 곤난하다고 말씀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녀성의 말을 우리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 자신께서 이미 준비하고계시던 농촌기술혁명에 대한 갈망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시며 이것은 기술혁신에 대한 신호로 된다고 선언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농민들의 간절한 부탁을 안고 로동계급을 찾는 농민대표로 간주하시며 지체없이 기양을 찾으시였다.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자면 뜨락또르가 많아야 한다. 이를 남에게 의존할수 없다.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

어버이수령님의 이 불같은 호소가 기양로동계급의 가슴을 쳤다.

하지만 한장의 설계도면도 가지고있지 못한것이 제일 난처한 일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뜨락또르를 분해하여 도면을 떴으며 도면이 완성되는 차제로 제품을 가공해다가 견본옆에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서 자기 손으로 생산해낸 수많은 부속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부속이나 깎아맞추는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결사관철하고 수령님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 자각이 기양로동계급의 심장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마침내 뜨락또르시제품생산은 조립단계에 이르게 되였으나 매일 자기 일을 마치기 바쁘게 뜨락또르조립장으로 몰려와 하다못해 공구를 집어주는 심부름이라도 시켜달라고 《성화》를 먹이는 사람들로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는것이 문제였다. 오죽하였으면 시제품직장 로동자들이 조립시간이 지체될가봐 그 주위에 줄을 쳐놓고 그들의 뜨거운 청원을 사절하지 않으면 안되였겠는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일편단심으로 심장을 불태운 우리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의 이런 열의속에 뜨락또르는 35일만에 고고성을 터쳤다.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빨간 동체를 쓸어만지고 또 쓸어보시며 그래, 뜨락또르가 제발로 걸어왔단 말이지라고 기쁨의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기양의 로동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여주시오라고 하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음성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에 메아리친다.

뜨락또르를 만드는 나라가 불과 10여개밖에 안되던 때 단 35일만에 뜨락또르생산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그 정신으로 우리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그때로부터 40년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쏴올려 세상을 다시금 들었다놓았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과시한 서해갑문,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인 검덕의 제3선광장, 룡성의 새 기적으로 력사에 길이 남은 1만t프레스…

천갈래만갈래로 뻗은 길들중 우리가 갈길은 오직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에 앞서나가는 길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한 인민,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길이 곧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빛내이는 길,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의 길임을 뼈에 새긴 인민만이 이런 경이적인 사변으로 년대와 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일수 있는것이다.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주신분은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우리가 자강도, 그 이름을 자주 뜨겁게 불러보는것은 단순히 시련의 나날 조국의 북방땅의 인민들이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추억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이 땅에서 조선사람의 넋, 위대한 애국의 넋이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을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기때문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백두밀림에서 울려퍼진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여 주체의 위력으로 부강조국의 터전을 억척같이 다지자!

이런 비상한 사상적각오, 결사의 정신을 자강땅 이르는 곳마다에 심어주시였으며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빈터에서 락원을 일떠세운 지난날을 뜨겁게 회고하게 하는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도 함께 들으신 우리 장군님.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천리마의 나래를 억세게 펼쳐주시고 우리의 힘, 우리 식대로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떠올리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를 뜨겁게 추억하게 하는 노래,

우리 장군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 우리가 벌리고있는 투쟁을 놓고 또 저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우리를 회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며 각별히 사랑하신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이 노래의 구절구절을 뼈에 새기며 자강땅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이 분발하여 일떠섰다.

행복한 날에는 누가 일을 더 잘하는지 서로 엇비슷해보이였다. 그러나 조국이 가장 큰 시련을 겪을 때 자강땅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지 않았다. 자기의 령도자가 제일 힘들어할 때 충정스러운 인민의 뜨거운 열과 순결한 정, 넋을 송두리채 드리고 신념과 량심을 령도자에게 바치였다.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장군님의 인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처럼 모진 눈보라를 헤치시였는데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죽으나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높이 울려야 한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로 향한 이런 일편단심으로 맹물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얼음을 까고 발전소언제를 쌓았으며 설계도면우에 쓰러지면서도 일터를 떠나지 않고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강성번영의 씨앗을 피와 땀으로 애지중지 가꾼 자강땅로동계급,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니던가.

그 값비싸고 눈물겨운 애국의 재부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장은 불덩이를 안은듯 하였다.

보라, 우리가 시련의 시기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외세에 의존하여 경제를 추켜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후에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하던자들과 본질상 다름없다.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며 외세에 의존하면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쳐다보며 침을 흘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적들의 포악무도한 전쟁위협과 추파에 굴복하여 《개혁》, 《개방》의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오늘처럼 류례없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포성으로 세계를 진감시킬수 있었겠는가.

그 위대하고 불멸할 업적을 잊지 못하여 천만군민은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거세차게 일구신 자력갱생의 열풍을 사랑하는것 아니던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그 어떤 의무감으로는 이 위대한 세계를 다 설명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신 영원한 수령님들의 조국이며 강철의 선군령장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세상으뜸으로 일떠세우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영원한 신념이고 존엄이다.

자기의것이 아닌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남의 처방을 무작정 받아무는것은 자살행위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붕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제 옷을 훼버리고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었기때문이다.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은 그 음흉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다.

남의 도움을 기대하는것이상 어리석은짓이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백, 천을 빼앗는 《원조》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중의 유훈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는 길은 곧 파멸의 길이다.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군들속에서 남을 쳐다보는 병을 없앨데 대하여 여러차례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수입병을 없애는것이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와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치좋은 해안도시를 관광지로 리용하여 많은 돈을 버는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를 방문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해변가의 경치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림처럼 펼치고있었으나 개방해놓아 물밀듯이 쓸어든 관광객들의 행동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나라 대통령에게 관광업으로 돈을 버는 대신에 몇배나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데 대하여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천리혜안의 가르치심이였다. 덮어놓고 남의것을 모방하고 남의 《처방》을 명약처럼 받아물던 그 나라는 서서히 제국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빼앗겼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기치까지 내리우게 되였던것이다.

시련의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피를 끓게 한다.

우리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무렵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도의 금속공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였을 때의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고립압살책동으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었다.

일군들 특히 한 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무거운 자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이 협의회가 자기 기업소의 한심한 형편때문에 소집된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기업소를 살리자면 다른 나라와 합영해야 한다는 결론, 해가 넘어갈수록 모호한 합영문제…

실태는 바로 이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준절하신 음성이 일군들의 심장을 쳤다.

기업소를 합영할데 대한 문제에서는 더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합영하자는 목적은 뻔하다. 주식을 사겠다는것이나 같은것인데 그것은 우리 나라를 통채로 먹지 못하겠으니 공장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먹자는것이다!

일군들은 소스라치도록 놀랐다.

나라의 생명선, 그 명줄을 남에게 맡기려고 생각하였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의 명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업소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추켜세우는 길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철리를 깨우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뼈에 새겨안고 누구나 생의 순간순간 유훈관철전, 그 앞에서 자기의 당성, 애국심을 검증받아야 한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애국이고 주체이다.

애국자의 징표를 재는 척도는 그 어떤 직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우리 시대의 애국자, 이는 당과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살겠다는 리념이 뚜렷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자존심이 높으며 조국과 인민에게 보탬을 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주체성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헛눈을 팔지 않는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은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한다는것이 항일의 연길폭탄정신을 이어 맨손으로 뜨락또르를 만든 전세대들이 후대들에게 명줄과도 같이 넘겨준 민족존엄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번영의 진로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로 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라는 리념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이다.

자기의 힘과 기술로 쌓은 언제우에서 승리의 함성을 터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은 얼마나 온 나라를 격동시키였던가.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다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의 결정체인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여 우리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본때는 또 얼마나 장하며 온 나라를 애국위업에로 고무추동하고있는것인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미남자처럼 잘 생긴 지하전동차를 리용하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엇이든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치 못하며 지하전동차개발자들처럼 투쟁할 불타는 열의에 넘칠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이 신념으로 충만되여 산악같이 일떠선 무성한 철의 대오가 우리 당이 가리키는 애국의 좌표를 따라 용감무쌍히 전진하기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산대국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영웅청년신화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글발

백두산대국의 청춘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호언제 전망대지구에는 어머니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대대손손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글발이 아로새겨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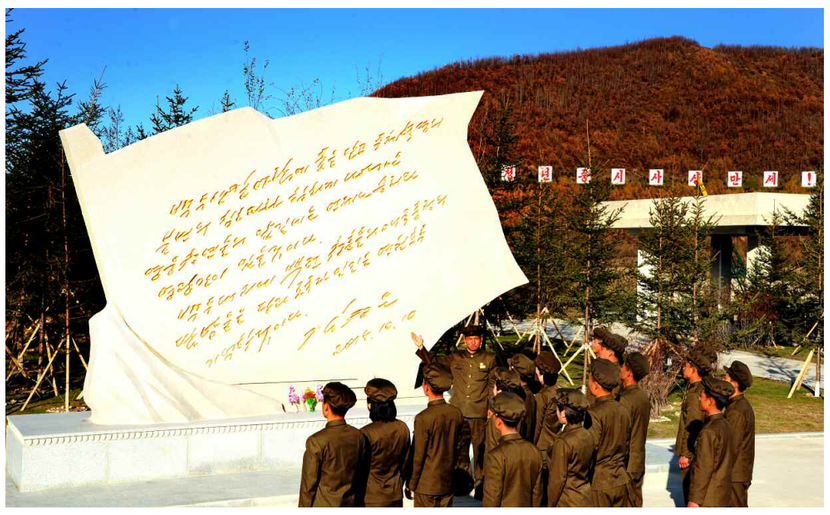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대지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과 뜨거운 정을 담아 한자한자 써서 보내주신 친필서한,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백두대지에 뿌린 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토록 기억할것이다.

김 정 은

2015. 10. 10》



지난 10월초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준공과 더불어 백두청춘들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1호언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지구에 뜻깊은 친필비를 일떠세웠다.

한자한자 새겨볼수록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가슴속에는 격정이 차오르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과감히 떨쳐나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한 자욱을 새겨온 지난 120여일간의 나날이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사랑의 이 친필서한을 한생토록 뼈와 살에 새기고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며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는 친필비앞에서 충정의 맹세를 다지던 10월의 격정이 끓어넘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첫눈이 내리는 밤에

첫눈이 내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일 열의로 가슴 불태우는 천만군민을 축복하여주며.

산에도 들에도, 거리와 마을에도 흰눈이 소복이 내려 아름다운 은빛세계를 펼치였다.

그칠새 없는 흰 눈발속에서 아이들은 즐거이 뛰놀았고 행복속에, 기쁨속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다.

정말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흰눈이다. 하얗게 내리는 첫눈은 우리의 마음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차넘치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주체84(1995)년 11월 24일 깊은 밤이였다.

전선로동부의 높고낮은 산발들에 첫눈이 내리고있었다.

첫눈은 각별히 정회를 불러일으키군 하여서인지 부대지휘부의 창가에서 흰눈을 바라보는 한 지휘관의 얼굴에도 그 시각만은 늘 떠돌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온한 감정이 흐르고있었다.

겨울나이준비가 다되였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올해에 부대에서 남새는 얼마나 접수했는가, 날씨가 추워오는데 전사들에게 더운밥과 국을 먹이고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지휘관은 목이 꽉 메여 얼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고요를 깨뜨리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든 그의 눈빛이 대번에 기쁨으로 빛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걸어오신 전화였던것이다.

뜻밖에도 최전연초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는 인사의 말씀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소의 군인들이 잘 있는가고 하시면서 추운 겨울이 오는데 부대의 겨울나이준비는 다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하여 그가 올리는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을 잘 돌보며 사랑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였다.

그는 인차 송수화기를 놓을수가 없었다.

내리는 첫눈을 보며 자기는 정서에 잠겨있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멀리에 있는 아들딸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전사들의 건강과 생활형편을 두고 마음쓰시는것이였다.

지휘관은 후덥게 달아오르는 가슴을 달랠길 없어 밖으로 나왔다.

시계는 1시 3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초소에 자식들을 세운 부모들도 깊은 잠에 들었을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는 천리방선의 병사들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인양 하얀 눈이 포근히 내리고있었다.

흐르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많은것을 지워버리거나 희미하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 미더운 선군혁명동지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을 어찌 잊을수 있단말인가.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 땅우에 내리는 첫눈은 그리도 조용히 깊은 사색을 주며 내리는것은 아닌지.

본사기자

가리라 혁명의 성산으로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이면서도 중핵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시에도 있는것처럼 하늘만큼 높이 솟은 산일뿐아니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깃들어있는 영웅의 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행군길을 다그치던 답사대오가 중흥등판에 올라섰을 때였다. 답사대원들속에서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백두산의 웅자가 밀림의 숲너머로 한눈에 안겨왔던것이다.

아득한 밀림의 바다우에 장엄하게도 솟아 조선의 기상을 떨치는 백두산,

백두산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였다.

세계에 백두산처럼 아름답고 장엄한 산은 없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을 잊지 않고계신다. 백두산에는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투쟁의 자취가 스며있다. 백두산은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되기때문에 세계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있다. 백두산은 강의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기상인양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조국땅 북변에 거연히 솟아있을것이다. …

답사대원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백두산이 그처럼 높고 빛나는것은 산의 지리적인 해발고가 높아서가 아니라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우리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인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신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그러나 오늘도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받은 새 세대들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요와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힘차게 부르며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계속 행군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 오르시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심어주시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백두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산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산인 백두산으로 오르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와 살에 쪼아박고 강성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비상한 혁명적각오를 다지고 무진장한 정신적량식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래일을 앞당기는 투쟁속에서 찾으신 기쁨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우리의 선군이 그렇듯 위대하고 성스럽고 고상함은 바로 그 주인공들이 누구보다 락천적이고 생활을 사랑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들이기때문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락관의 정서, 희망의 웃음으로 이겨낼줄 아는 진짜배기혁명가, 선군시대의 참다운 인간들을 키우신분, 그이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였던 주체87(1998)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어느 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때였다.

로동자들의 작업모습도 보아주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보시오, 우리 로동계급의 기상이 얼마나 장한가 말이요라고 하시였다.

생활상곤난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기대결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일터를 비우지 않은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강의한 의지,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훌륭한 래일이 온다는것을 확신하는 억척의 신념이 무엇보다 귀중하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 사랑과 믿음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오늘의 투쟁의 진두에는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서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에게는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억센 주먹과 무쇠마치가 있습니다, 새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된 우리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며 동무네도 보았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말이요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은 이곳에 오기전에 돌아보신 어느 한 기업소의 건물벽에 써붙였던 구호를 념두에 두신것이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구호를 보시며 아주 좋은 구호라고, 정말 좋다고,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가 반영된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며 몇번이고 되새겨 읽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좀전에 보시였던 그 구호를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거세찬 숨결이 맥박치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끝없이 번영할것이라고 하시며 그곳 기업소에서 본 그 구호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로동계급과 함께 웃으며 돌아보지 않습니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있단 말입니다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따라 웃었다. 아니 온 나라가 웃는 격동적인 순간이였다.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장군님을 우러르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눈물이 솟구치고있었다.

선군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천만군민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래일을 앞당기는 투쟁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그처럼 위험천만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락관주의자들로 될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와 심장을 잇대이고 나누는 이런 피와 정이 있고 사상과 의지가 있으며 신념과 미래가 있기에 우리의 선군위업은 그토록 락관적인것이 아닌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

뜨거움에 젖어있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귀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왔다. 그이께서 힘차게 보폭을 내짚으시며 활달하게 걸음을 옮기고계시였다.

일군들도 따라 걸었다.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자욱, 강행군의 자욱을 따라 힘찬 걸음을 내짚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하지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의 선군, 진정 그것은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참된 혁명가, 미래를 락관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만이 이룰수 있는 성스러운 위업이기에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은 그렇듯 힘차고 긍지에 넘쳐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백영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만선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려가자

중심어장에 울리는 당정책옹위전의 함성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동해가 물고기잡이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 수산사업소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포구마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들끓는 중심어장에서 수산부문 일군들을 만난 우리는 도루메기잡이의 현 실태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으로 맞이하기 위한 일군들의 지휘, 어로공들의 불같은 투쟁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집중적인 도루메기잡이전투에 대하여 알고싶다.

수산성 부상 손성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고 우리 어로전사들의 열의는 하늘에 닿았다.

지금 근 100척의 고기배들이 중심어장을 메우다싶이 하였다. 연안어업에 참가한 크고작은 고기배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대단하다.

성적으로 하루 최고 근 850t, 여기 중심어장에서만도 수백t의 어획고가 기록되고있다. 《삼천리—1》호를 비롯한 수천t급이상 되는 가공모선 3척이 뜨랄선들과 함께 중심어장을 차지하였다. 연유와 후방물자들을 어장에서 작업선들에 공급하고 잡은 물고기들을 받아 가공처리하면서 가까운 포구에 하륙도 하고있다. 가공모선들의 저장고들에 수천t의 물고기가 쌓이였다. 곳곳의 하륙장들에서는 하루 수백t씩 전국각지에 보내주고있다.

수산성 부국장 오광덕: 포구에 쏟아져내리는 물고기폭포는 볼수록 흐뭇하다. 요즘 발이 닳도록 뛰여다녀도 힘든줄 모르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사전준비를 잘하는데 힘을 넣었다. 여름철물고기잡이에 이어 수십명의 정무원들이 각지 수산사업소들에 달려나갔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고기배들의 수리정비와 그물, 연유보장을 면밀하게 따라세웠다. 지금 각 수산사업소 고기배들과 하륙장, 가공모선 등 중요현장들을 성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비롯한 50명이 넘는 정무원들이 지켜섰다. 그들은 어로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어로전을 벌리고있다.

기자: 《삼천리—1》호와 여러 고기배의 어로공들과 동승하면서 1선참호에 선 화선지휘관마냥 돌격구령을 치는 수산성과 도수산관리국, 각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불같은 투쟁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일군들의 작전과 어로공들의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수산성 국장 박인건: 지금 모든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전투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립장에서 결사전을 벌리고있다. 기망회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이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맹렬한 어로전을 들이대고있다. 요즘 어로작업에 불리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있다. 하지만 웬만한 바다날씨에는 작업을 중단할수 없다며 침식을 잊고 과감한 전투를 벌리는 어로공들의 힘찬 투쟁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년간 1만여t의 생산목표는 문제없다.

수산성 부원 김성진: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면밀한 생산조직을 따라세우고있다. 해상지휘선에서는 고기배들의 집중과 분산적인 어로전을, 륙상에서는 지휘선과의 긴밀한 무선대화를 보장하여 만선한 고기배들의 물고기하륙시간을 단축하고있다. 가공모선들과 탐색선들에 의거하여 어황에 따르는 기동적인 작전을 펼치고있다. 연안까지 밀려든 도루메기떼를 놓치지 않을것이며 나가는 물고기까지 잡기 위한 추격전도 준비하고있다. 그를 위해 일군들은 연유를 싣고 수천리 밤길도 달리고 낮에 이어 밤을 새워가며 어로공들과 그물을 당기고 하륙전투를 지휘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들이대고있다.

강원도수산관리국 국장 전창국: 수산관리국에서는 어장이 가깝게 형성된 유리한 조건에 맞게 작은 고기배들까지 총출항시켰다. 열흘동안에 천수백t의 도루메기를 잡았다. 맡겨진 생산계획은 이미 수행하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점령을 위해 돌격하고있다. 원산수산사업소와 두포곱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가 앞장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만이 아닌 수산관리국아래 모든 단위 어로공들이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귀항할수 없다며 불사신마냥 투쟁하고있다.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가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원산수산사업소 지배인 문남철: 우리들은 뜨랄선과 덤장배를 엇바꾸어 타며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고있다. 오늘은 포구에서 진공하륙뽐프의 가동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어장실태와 크고작은 고기배들의 움직임을 현지에서 확인한 다음 기동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니 생산실적이 쑥쑥 높아지고있다.

수산성 국장 박인건: 어로공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직관선전과 사회주의경쟁이 조직되였다. 양화, 김책수산사업소,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가 앞장에 섰다. 계획수행률에서는 강원도, 함경북도수산관리국이 앞장섰다.

오늘의 물고기잡이는 단순한 어로전이 아니라 당정책관철전,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우리는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대오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여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작은 배들도 한몫

신속한 어황통보

두포곱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는 작은 고기배들을 위주로 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이 단위의 실적이 관리국적인 물고기잡이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 점이다.

비결은 물고기잡이준비와 함께 작전을 잘한데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물고기잡이시작전에 여러 방향으로 감시배들을 파견하였다. 물고기잡이철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어황통보가 아주 중요하기때문이다.

사업소에서는 도루메기가 잘 드나드는 문바위, 백섬, 솔섬주변을 비롯한 여러 수역에 고기잡이에서 실적이 좋은 배들을 미리 대기시켜놓고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였다. 11월 6일 첫 도루메기떼가 문바위와 백섬주변수역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배들을 통해 남먼저 받은 사업소에서는 모든 배들을 일제히 그곳으로 출항시켰다. 결과 사업소의 고기배들은 다른 단위들보다 먼저 고기잡이에 진입하였다.

이 단위의 경험은 예견성있게 작전을 잘 세워놓으면 작은 배들로도 물고기잡이전투를 잘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물고기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통천수산사업소 고기배 ㅅ—자—12884호가 물고기잡이실적이 높다.

선장 김유철동무는 그 비결의 하나가 어구준비를 잘 갖추는것과 함께 물고기종류별생리적특성에 맞게 기재준비를 잘한데 있다고 말하였다.

다시말하여 물고기가 좋아하는 물온도, 바람방향에 맞게 그물을 정확히 놓는것과 함께 물고기가 좋아하는 색갈의 조명을 잘 선택하고 그에 맞게 밝기를 조절하여 물고기를 끌어들인다는것이다.

실례로 도루메기는 찬물을 좋아하기때문에 물곬에 덤장을 치고 날씨조건에 맞게 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것이 불빛을 잘 관리하는것이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도루메기가 좋아하는 빛색갈은 감색과 분홍색이라고 한다.

이에 맞게 예비발동발전기와 전등을 항시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렇게 물고기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불빛을 선택하는것도 어획고를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였다.

윤금찬

과학기술전으로 높은 어획고 기록

척후병과 만선의 배고동소리

ㅅ—탐—12112호 탐색선이 집중적인 어로전의 눈과 귀가 되고있다.

어느 해구에 물고기떼가 있으며 중심어장은 어디로 옮겨지는가. 이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어로전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근 100척의 고기배들에 대한 집중과 분산의 어로전을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것이 여기에 따라 좌우되기때문이다.

수산성에서는 통천앞바다에서의 집단어로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해어로탐색대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였다. 척후병마냥 날바다를 손금보듯 주시하며 중심어장을 제때에 찾아내는 탐색선에는 풍부한 물고기잡이경험을 가진 선장 오정철동무와 대장 김철일동무의 3명의 연구사들도 타고있다. 이들은 날바다를 종횡무진하며 도루메기의 생태조사와 물온도, 회유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어황예측, 어장선택을 진행한다.

지휘선에서는 탐색선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여러 해구에서의 고기배들의 어획고를 대비적으로 분석하고 생산조직을 과학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어로전은 중심어장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최근에도 탐색선은 기망당 15t이상 잡을수 있는 중심어장을 여러번이나 찾아내여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릴수 있게 하였다. 전투승리가 척후병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듯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탐색전투를 벌리는 이들의 위훈은 포구마다에서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말해줄것이다.

항해기록부와 결합된 어황예측

원산수산사업소 뜨랄선 ㅅ—ㅈ—91721호 선장 염명식동무는 물고기잡이명수로 알려져있다. 기망당 평균 10t은 놓치지 않는다.

선장은 그 비결의 하나가 풍부한 경험과 과학적인 어황예측에 있다고 말하였다. 지형이 복잡한 바다밑에는 어기와 어종별에 따라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다.

염명식선장에게는 수십년간 체계적으로 어기와 어종별에 따라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분석해온 부피두터운 항해기록부가 있다. 그 도움을 크게 받고있다.

말하자면 어느때 어느 해구에서 얼마만 한 어획고를 기록하였는가가 서술된 기록부를 놓고 과학적인 어황통보를 보다 구체화하여 물고기떼의 움직임을 판단하는것이다.

실례로 선장은 성적인 어황통보를 놓고 해당한 해구에서의 수십년간의 어획정형을 분석한다. 다음 물온도와 부유생물의 움직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고기배의 위치를 정한다.

이러한 어황예측은 많은 경우 정확하였으며 다른 고기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어획고를 기록하게 하고있다. 그는 앞선 어로방법을 다른 어로공들에게도 배워주어 100여명의 쟁쟁한 어로공들을 키워낸 유능한 선장이며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 선 실천가이다.

본사기자

현지보도 잠들줄 모르는 포구의 밤

통천수산사업소 하륙장에서

뭇별들이 총총한 깊은 밤이다.

그러나 포구는 잠들줄 모른다.

만선의 고동소리를 울리며 고기배들이 련속 포구로 들어선다.

출렁이는 바다와 함께 움씰거리는 크고작은 고기배들의 마스트에서 발산되는 강렬한 불빛, 줄지어 늘어선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전조등의 불빛에 산처럼 쌓인 은빛색물고기들이 환하게 비쳐드는 여기는 동해의 손꼽히는 어장을 타고앉은 통천수산사업소 물고기하륙전투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양수기의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진공하륙뽐프가 용을 쓰며 돌아간다.

《웅—》

하륙장의 중심위치에 놓인 한 아름이나 되는 수송관은 거대한 포문인양 롱트림을 하며 물고기들을 연방 뿜어낸다.

출렁이는 고기배의 선창에서 물고기들이 관을 타고 솟구쳐올라 하륙장으로 흘러드는 장쾌한 모습이다.

대낮같이 환한 불빛에 안겨드는 드넓은 하륙장엔 물고기바다가 펼쳐졌다.

진공하륙뽐프가 용을 쓸 때면 바다처럼 설레이며 우줄우줄 솟아오르는 물고기산!

이 한밤에 쌓인 물고기량은 헐잡아서 수백t은 실히 잘될듯싶다.

《바다 만풍가》의 선률이 절로 나오는 포구의 밤이다.

너무도 흥에 겨워 일필휘지로 취재수첩의 갈피를 빼곡이 채워가는 우리에게 직장장 편영수동무가 말한다.

《올해엔 하륙장을 크게 확장하고 설비대수도 2배나 늘였는데도 고기배들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미처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대조작에 여념이 없는 운전공들과 분주히 오가는 상차공들의 긴장한 작업모습이 보인다.

하륙장주변에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물고기산을 포위하듯 산개대형을 이루었다. 상차공들이 여러명씩 조를 지어 숨돌릴새없이 물고기들을 화물자동차에 가득가득 싣는다.

《신바람이 납니다. 물고기잡이전투가 시작된지 10여일이 되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만도 벌써 수천t의 물고기를 하륙하였습니다.》

사업소 책임부원 전성철동무도 긍지에 넘쳐 목소리를 합친다.

물면에 선체를 깊숙이 박은 고기배들이 련이어 부두로 다가든다.

어느새 하륙을 끝마친 고기배가 서둘러 부두에서 떨어지자 만선기를 펄펄 날리며 ㅈ—만—16호가 그 위치를 차지한다.

선장 김성준동무가 확성기를 잡고 여유작작하게 계류작업을 지휘한다.

위치를 차지하는 어로공들, 계류작업이 끝나는 차제로 윤순호, 정광철, 주철우동무들이 선창기중기로 향한다.

코끼리의 기다란 코를 방불케 하는 수송관이 기중기에 이끌려 선창으로 향한다.

부두에선 양수기, 진공하륙뽐프의 동음이 울리고 또 한차례의 물고기떼가 부두로 떠오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는 물고기산이다.

때를 놓칠세라 현장방송선전차에선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가락맞게 울려나온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

하륙장의 전투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고 물고기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떠나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포구의 그윽한 향기, 사회주의바다향기를 정히 담아싣고.

글 및 사진 전혁철

승리의 대회장과 잇닿은 어로공들의 투쟁

락원수산사업소 뜨랄선 1259호를 타고

동승기

세찬 파도가 밀려온다. 그러나 만선기 날리며 연방 포구에 들어선 고기배들은 물고기폭포를 쏟아내고는 또다시 출항준비를 재촉한다.

우리는 당의 사상관철전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불같은 투쟁을 상세히 전하기 위해 락원수산사업소 뜨랄선 1259호에 올랐다. 인상좋은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인 김장선동무는 해상경보가 예견된다며 동승의 길에 오르는 우리들을 념려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현대적인 항해, 어군탐색설비들을 갖춘 뜨랄선 1259호가 서서히 포구를 떠난다.

《기관시동, 전속 앞으로!》

선장 조영일동무가 능숙하게 고기배를 몰아간다.

물고기하륙전투로 끓어번지는 포구는 점점 멀어져가고 검푸른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진다.

뜨랄선 1259호는 파도를 헤가르며 앞으로 전진한다. 선수갑판의 앞머리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집채같은 파도, 쩡— 쩡— 요란한 부딪침소리와 함께 선장실너머에까지 물보라가 휘뿌려진다. 선수와 선미가 엇바꾸어 하늘을 치받을듯 솟구쳤다가는 물면에 들어박힌다.

심하게 흔들리는 갑판에서 맨몸도 가누기 힘들다. 허나 용맹한 바다의 정복자들은 민첩하게 움직인다. 쌍안경으로 중심어장을 차지한 덩지큰 가공모선들과 각 수산사업소들에서 온 수많은 고기배들이 뚜렷이 보인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수평선 멀리까지 한벌 쭉 덮였다.

선장이 익숙된 솜씨로 불이 번쩍 나게 일손을 다그치는 저 어로공들이 사업소적으로 소문난 혁신자들인 신충성, 한철호, 구함모, 김영철, 한철수, 안충성동무들이라고 귀띔하며 지금 어장을 차지하는 즉시 어로전에 진입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중이라고 말한다.

준비작업이 끝나자 어로공들이 김장선동무의 주위에 모여든다. 격식없는 모임이다. 모두가 하루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결의다진다.

《어로전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가는 앞길에 풍랑이 막아선다 해도 물러설수 없다. 가장 어려운 모퉁이를 내가 맡겠다.》…

이어 곧 투망하겠다는 선장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린다. 어로공들이 번개같이 자기 위치를 차지한다. 해풍에 탄 어로공들의 구리빛얼굴에는 자신심이 확연하다.

《투망!》 또다시 울리는 담찬 구령과 함께 커다란 그물이 순식간에 선미에서 흘러내려 바다에 떨어진다. 넓다란 확대판이 사품치는 물속에 가라앉자 그와 련결된 쇠바줄이 팽팽히 당겨지기 시작한다.

50m깊이의 바다밑에 그물을 떨군 고기배가 용을 쓰며 전진한다. 정순혁동무가 선장의 지휘에 따라 땀을 훔칠새없이 알맞는 속도보장에 여념없다. 선장이 어군탐색설비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떼를 주시하며 조타를 좌우로 련속 돌린다.

고기배의 속도가 점차 늦추어진다. 송동수부선장이 그물에 드는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다고 알려준다. 그리고는 첫 기망에 15t은 문제없을것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예망작업의 여가시간에 우리는 수산성 일군인 김창남동무를 만났다.

《현재 바람은 10~15m, 물결은 3m입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어로전은 종전에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자고 저렇게 모두가 격렬한 어로전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양망작업이 시작된다.

권양기에 바줄이 련속 감기자 그물이 서서히 물면에 떠오른다. 펄펄 뛰는 도루메기들로 바다물이 은백색을 띠며 죽가마끓듯 한다.

기중기팔에 매달려 떠오른 물고기더미가 연방 폭포처럼 갑판에 쏟아진다. 뜨랄선 1259호는 또다시 다른 수역으로 기동한다. 이런 작업과정이 반복되면서 선창에는 물고기가 차고 넘친다. 60t은 잘될듯싶다. 떠나올 때보다 선체가 1m나 물속에 깊숙이 박혔다.

풍어기가 나붓긴다. 용맹한 바다의 정복자들앞에 머리를 숙인듯 변덕스러운 바다날씨는 점차 잦아든다.

만선의 기쁨이 배전에 넘친다. 찌꼴새로 소문난 한신화, 방성화동무들의 선창이 합창으로 이어진다. 선창과 갑판에 쌓인 물고기를 보고 갈매기들이 날아들고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간다. 당 제7차대회와 잇닿은 승리의 환호성마냥 끝없이 울려퍼진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바다향기 갑판에도 저장고에도 차넘친다.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자력갱생의 북소리높이 세포등판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간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애국풀》퍼치기에서 중시한 종자보관문제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붉은 당기를 혁명의 제일군기로 틀어쥐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 《애국풀》종자보관관리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부대지휘관들은 세포등판에 《애국풀》을 널리 퍼칠데 대한 당의 뜻을 충정다해 받들어갈 열의로 가슴끓이며 그 종자의 겨울나이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지하게 벌렸다. 그때 부대정치일군인 리문국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에 찾아가보는것으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것을 제기하였다.

지휘관들은 이 단위에 찾아가 귀중한 경험을 배우는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세포등판에 얼마든지 《애국풀》바다를 펼쳐놓을수 있다는 신심을 안고 돌아와 종자보관관리작전을 펼쳤다.

지휘관들이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 문제는 종자보관고를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것이였다.

이들은 세포지구의 겨울철 일기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우선 반지하식보관고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런 보관고를 건설하면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고 땅이 깊이 어는 세포지구에서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며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했다.

이 보관고를 건설하자면 땅을 어느정도 깊이 파야 하는데 건설부지로 정한 곳에는 굳은 암반이 깔려있었다. 주변에는 새로 일떠세운 축산기지건물들이 있어 발파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세포등판에 《애국풀》바다를 펼쳐놓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자랑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열의밑에 정대와 함마로 암반을 까내며 터전을 닦았다. 여기에 콩크리트벽체를 쌓은 다음 층막을 치는 방법으로 반지하식보관고를 건설하였다. 층막우에는 온도보장을 위해 소석회와 섞은 벼겨를 펴놓았다. 이렇게 하면 벼겨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벼겨우에는 박막을 씌웠다. 보온을 하는 동시에 벼겨가 습기를 받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박막우에 흙을 두툼하게 덮었다. 흙을 덮은 목적의 하나는 보관고를 건설한 면적에서도 먹이풀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견고하면서도 여러모로 보온대책이 세워지고 실리가 보장된 보관고를 건설하였다.

부대에서는 움식보관고도 건설하였다. 이 보관고는 땅을 2m 깊이로 판 다음 우에 보를 대고 강냉이짚과 벼겨를 일정한 두께로 차례차례 펴놓은 후 흙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이 보관고는 적은 원가를 들여 어디서나 지을수 있는 우점이 있다.

채광남, 리영철동무들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보관고건설과 함께 종자보관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이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결사관철로 보답하려는 일념을 안고 종자 겨울나이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실천하였다. 이미 심은 《애국풀》의 줄기마디를 자르는 사업부터 잘 짜고든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지휘관들은 종자로 쓸 줄기마디들을 톱으로 자르기로 하였다. 물론 낫으로 벨수도 있었다. 그러나 뿌리쪽으로 내려가면서 줄기마디가 더 배게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정확히 잘라 한개의 종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톱을 리용하기로 했던것이다. 지휘관들은 이 사업을 단순히 먹이풀재배를 위한것이 아니라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여기고 줄기마디자르기를 맡은 군인들을 당원들로 선발하였다. 이처럼 높은 사상관점에서 사업을 짜고든 결과 줄기마디자르기가 기술적요구대로 원만히 진행되게 되였다.

줄기마디를 자르고 뿌리를 들춰낸 다음 종자보관고에 어떻게 보관했는가.

지휘관들은 군인건설자들이 뿌리와 줄기마디들을 보관고에 들여오기 전에 채로 친 깨끗한 모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모래는 통기성이 좋고 종자를 보호할수 있으므로 흙대신 리용하게 했다.

군인건설자들은 보관고바닥에 먼저 모래를 펴고 뿌리를 여러층 쌓았다. 매 층을 쌓을 때마다 아래 펴놓은 뿌리들사이의 우에 다음뿌리가 놓이도록 했다. 통기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뿌리를 쌓은 더미의 여러곳에 강냉이짚으로 통기구멍들도 내주었다.

줄기마디는 보관고에 설치한 덕대에 쌓았다. 여기에 모래를 편 다음 공기가 잘 통할수 있도록 줄기마디들을 가로세로 쌓았다. 지휘관들은 여러겹 쌓은 줄기마디들의 자름면이 로출되여있어 여기로부터 수분이 날아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도 방법론있게 세웠다. 수분보충을 위해 우에서 물을 뿌려주면 종자에 덮인 모래가 씻겨내려가게 된다. 또 줄기마디들의 겉면은 섬유질로 되여있어 물을 흡수할수 없다. 때문에 자름면들에 젖은 북데기나 풀을 붙여주어 줄기마디들이 그 수분을 빨아들일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인건설자들이 보관고의 온도와 습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며 종자보관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애국풀》기르기에서도 혁명의 주력군답게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은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세포지구 인민들을 당정책옹위전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행복한 래일을 위한 오늘의 하루하루

조선인민내무군 리영호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지난 11월초 어느날 이른아침 풀판을 돌아보는 조선인민내무군 리영호소속구분대 군관 리철호동무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고 거름생산전투를 벌려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안겨들었던것이다.

그 모습들을 보느라니 풀씨뿌리기전투를 벌리던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지난 4월 어느날 구분대앞에 또다시 여러정보의 인공풀판에 대한 풀씨뿌리기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군관 리철호동무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였다. 20여정보의 인공풀판에 대한 먹이풀씨뿌리기를 제기일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온 군인들의 어깨우에 새로운 전투과제가 덧놓이게 되였던것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병영으로 들어서던 그는 뜻밖의 광경앞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군인들이 모두 지휘관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군관 김성일동무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어서 구령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자기들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이 땅을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풍요한 대지로 전변시키는 길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전체 군인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그들은 그렇게 또다시 전투명령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돌격전에 나섰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것은 시간이 모자라는것이였다.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줄달음치자.

모두가 이런 하나의 지향안고 지혜를 합쳤다.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도 저녁시간을 리용하여 잡초뿌리털기와 걷어내기, 골째기, 거름내기 등 사전준비를 해두었다가 낮시간에 력량을 집중하여 풀씨를 뿌리자는 의견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긴장한 전투의 하루하루가 흘렀다.

전투의 나날 누구라없이 맡겨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풀판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군관들은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쥐고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의 투쟁열의를 고조시켰다.

군인건설자들은 청춘의 자서전에 단 하루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두몫, 세몫 해제끼며 맡은 일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그날과제는 그날로 무조건!

이들모두의 가슴속에는 명령은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만이 맥맥히 고동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거름운반에 동원되였던 륜전기재가 뜻하지 않게 고장나게 되였다. 필요한 부속품을 가져다가 수리하자면 시일이 걸려야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질통을 지고 나서는 한 군관이 있었다.

《동무들, 오늘의 한초한초속에 인민의 행복한 래일이 비낀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그의 힘있는 호소는 군인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그들은 질통과 마대를 메고 왕복 1 000m가 넘는 거리를 달리면서 애국의 진한 땀을 바치였다.

거름운반이 계속되는 속에 마대전의 명수들이 늘어났다. 전투현장을 밝히던 우등불이 사그라지는것이 안타까와 불붕치를 만들어 태워가며 전투를 벌린 군인들, 그런가 하면 군의 리영성동무는 몸이 불편한 군인이 있을세라 발이 닳도록 전투장을 오가며 군인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맡겨진 풀씨뿌리기를 계획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게 되였다. 구분대는 부대적인 풀씨뿌리기전투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

진정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는 단 한치의 드팀도 모르는 미더운 모습들이였다. 군인들과 함께 거름생산전투를 벌려나가는 리철호동무의 가슴도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이 마음속깊이 간직한것이 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한없는 긍지이고 보람이다.

자기들에게 일감이 많아질수록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이 마중온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오늘도 군인건설자들은 세포등판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두달을 앞당겨 얻은 실리

대성지도국돌격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대성지도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소집되는 다음해 먹이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각종 토양개량제를 그전보다 더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낼 목표를 세웠다.

정광택, 리영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그 수행방도를 찾던 과정에 종전의 토양개량제생산시기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돌격대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대상건설을 최대로 다그치는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다보니 겨울철에 적지 않은 땔감을 소비하며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토양개량제생산을 하게 되였다.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 토양개량제생산을 하였지만 그 기일이 짧다보니 질과 량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었다.

하지만 겨울철전에 생산을 시작하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집짐승배설물을 비롯한 진거름을 북데기나 마른 풀과 섞어 쌓아놓아 오래동안 푹 썩이면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할수 있었다. 대기온도가 높을 때 유기질비료더미를 쌓아놓으면 그안에서 열이 발생하므로 이전처럼 수십 t의 땔감을 쓰지 않고도 그것을 부식시켜 질좋은 토양개량제를 생산할수 있어 더욱 좋았다. 토양개량제생산을 빨리 시작하면 그 량도 종전보다 늘어나게 되므로 일거다득할수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일군들은 지난해보다 두달 앞당겨 11월중에 토양개량제생산을 기본적으로 해제낄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물론 대상건설과 동시에 그것을 수행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시대의 벅찬 숨결에 발걸음을 맞추려는 각오로 달라붙으니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을수 있었다.

일군들은 우선 현장에 림시숙소를 전개하기로 했다. 돌격대숙소에서 현장까지는 한시간정도 가야 한다. 이렇게 오가는데 드는 시간만 절약해도 많은 로력과 시간예비를 얻을수 있다.

일군들은 토양개량제생산량을 늘이는데 필요한 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혁신적안목으로 찾았다.

그 하나의 실례가 있다. 일군들은 원료확보를 위해 유기질비료성분이 많은 감탕흙을 리용하는데 관심을 돌렸다. 일반적으로 감탕흙은 질척하기때문에 이전에는 땅이 언 다음에 그것을 파내군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토양개량제생산을 빨리 할수 없으므로 가을에 파낼수 있는 감탕흙을 찾아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돌격대원들과 지혜를 합쳐 집짐승배설물을 말리워 가루내여 부족되는 흙보산비료원료로 리용할 방도도 찾았다.

대성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새로운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현지에 나와 토양개량제생산준비사업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여기서 큰 힘을 얻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유기질비료더미를 산같이 높이 쌓았다. 그리하여 벌써 유기질비료생산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게 된 이들은 토양분석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소석회부터 포전별로 구색이 맞게 내면서 영광의 5월을 향해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초무연탄이 건축재로 리용되기까지

황해남도려단에서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 신심에 넘쳐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가고있다. 이들은 올해중으로 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로를 더 건설하고 창문, 출입문같은것을 자체로 만들수 있는 생산기지를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려단이 맡은 대상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만 있으면 무엇이나 다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고있기때문이다. 바로 대상건설에서 큰 은을 내고있는 자력갱생의 산물인 벽돌생산기지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려단이 건축공사를 제기일에 해제끼는데서 제일 걸린 문제는 자재보장이였다. 그 해결이 헐치 않았다. 자재때문에 숱한 걸음을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있겠는지 우려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슨 일에서나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담보는 자기 힘을 믿는 강한 정신력과 배짱이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은 불가능한것도 가능한것으로 전환시킨다. 이때 일군들의 사색과 실천은 이런 관점에서 진행되였다.

어느날 작업장으로 나가던 려단장은 현지주민들이 초무연탄무지에 불을 피우는것을 보게 되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초무연탄으로 벽돌을 생산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이 떠올랐다. 원료도 풍부하기때문에 성공만 하면 건축공사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었던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착상도 과학적인 론거가 안받침될 때 대중이 공감하고 달라붙게 된다. 려단장은 이런 립장에서 벽돌생산원리도 깊이 연구하고 그 고장의 토질상태에 대한 분석자료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될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이 문제가 일군들의 모임에 제기되였을 때였다. 과연 해낼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초무연탄을 리용하여 벽돌을 생산한다는 말은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었기때문이다. 이때 려단장의 원리적인 설명은 참가자들의 의문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분석자료를 보니 초무연탄은 발열량이 적지만 일단 불이 달리면 끝까지 타게 된다. 또한 이 고장에 있는 석비레속에도 불탈수 있는 물질이 어느정도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흙은 빚음성이 좋다. 그러니 이것을 일정한 비률로 혼합한 후 성형공정을 거쳐 말리운 다음에 불을 달면 자체로 타면서 얼마든지 벽돌이 될수 있다고 본다.

일군들은 신심이 생기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한 당의 뜻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자기 힘이 제일이며 또 자기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배짱이 생겨 얼마든지 성공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모임을 끝내면서 려단장은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다음날부터 온 려단의 관심속에 초무연탄에 의한 벽돌생산이 시험적으로 진행되였다. 불가능한 일을 벌려놓았다고 도리머리를 젓는 다른 단위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난관앞에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배심으로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려단정치부장이 이 사업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이때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질이 담보되지 못한것을 만들어놓고 자력갱생한다고 말할수 없다는 립장에서 이 사업을 내미는것이였다.

처음에는 건조공정을 거쳐 로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벽돌무지가 녹아서 하나의 큼직한 덩어리가 되는가 하면 어쩌다 형체를 갖추고 나온것이 강도가 보장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벽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을 해명하던 과정에 원료혼합비률을 바로 정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여기서 일군들은 이런 교훈을 찾게 되였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무슨 일이든지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은 다시 분발해나섰다. 즉시 해당 부문의 기술자를 만나기 위하여 먼길을 떠났다.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는 두팔걷고 나섰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드디여 기계적강도가 보장된 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혼합비률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짧은 기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결하여 벽돌을 련속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공정도 꾸려놓게 되였다.

려단에서 벽돌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하면서 얻은 실리는 대단하다.

우선 지난 시기에 비하여 숱한 세멘트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료가 풍부하여 아주 좋았다. 올해에도 100여만장의 벽돌을 생산하였던것이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와 살에 쪼아박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2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리정표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에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동맹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투철한 반제계급적립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명백하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모든 초급단체를 모범초급단체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며 온 나라 농촌마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군시대 본보기협동농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과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농근맹일군들이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위한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정보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4일과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리과대학, 희천공업대학, 국가과학원, 의학과학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현장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과학기술정보분과와 콤퓨터기술분과로 나뉘여 열린 발표회에는 13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발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보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한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정보수요조사분석을 비롯한 각종 정보봉사방법과 정보봉사지원체계, 언어정보처리를 위한 형태부해석, 의미해석, 기계번역 등 자연언어처리기술, 콤퓨터장치 및 매몰형장치설계와 프로그람개발 등 다양한 정보기술분야에 관한 과학기술제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회에서는 《일반화된 선형지속제한식의 모형검사에 대한 연구》, 《대규모정보검색체계에서의 분산검색환경구축에 대한 연구》, 《질문중심의 정의형질문응답에 대한 연구》 등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된 다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전국측정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측정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4일과 25일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철도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곡산공장 등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현장일군, 3대혁명소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9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발표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계량계측, 분석수단들과 측정방법들을 우리 식으로 현대화, 국산화하며 나라의 측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류체흐름해석에 의한 대구경관로의 평균류속점위치 결정》, 《화력발전소보이라 증기발생용물탕크 수위측정수감부개발에 대한 연구》, 《석탄발열량계제작에 대한 연구》, 《조약측정기구제작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론문들이 경제적효과성과 학술적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연구개발한 현대적인 계량계측, 분석수단들과 측정방법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적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발표회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측정과학기술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

팔레스티나국가선포 27돐과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5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혁명사적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로 침략자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최고사령부지휘처와 작전실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화의 나날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전법과 령군술을 터득하시며 선군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여러 사적물들도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대사는 감상록에 우리는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각하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는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체육사업을 실정에 맞게

장진종양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체육사업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박장근동무를 비롯한 종양장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배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체육경기들을 통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체육활동이 말은 혁명임무수행에서 집단주의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이들은 앙양된 대중체육열의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김성룡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이채로운 김장철풍경

어느 나라에나 자연이 준 계절은 다 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자연도 줄수 없는 다른 또 하나의 《계절》이 있다.

우리 인민의 슬기와 근면함을 보여주고 고유한 미풍량속을 엿볼수 있게 하는 그 계절 아닌 《계절》이 바로 김장철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립동을 전후로 하여 가을에 수확한 남새로 김치를 담그어 겨울철반식량으로 장만해두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다.

해마다 이맘때이면 어느 집에서나 김장은 다 끝났을런지도 모르지만 올해에는 립동이 퍽 지나도록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였던지라 아직도 김장철이 한창이다.

가을의 향기와 겨울의 정취를 함께 안고있는 김장철풍경,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는가.

장천지구에 펼쳐진 김장철풍경
—사동구역 장천리 조영표동무의 가정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시교외의 어느 한 동네에 펼쳐진 하나의 풍경에 눈길을 돌리였다.

앞치마를 척 두른 가정주부들이 저마끔 통진 배추를 드다루며 김장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고추를 찧는 할머니들의 모습도 보였다. 벌써 어느 집 주부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빨간 양념소를 배추속갈피에 넣고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느 지방,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김장철풍경,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가을풍경이였다.

우리 나라에 나무는 물을 먹으며 살고 사람은 김치를 먹으며 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김치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로 되여있다. 그래서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아주 맛없네라는 노래도 나온것 같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내려오며 널리 장려하고 즐겨 만들어먹는 김치, 하다면 거기에는 어떤 민족풍습이 깃들어있는가.

김치는 우리 민족음식이다. 김치라는 이름은 침채라는 말에서 유래되였다. 침채란 남새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뜻인데 그것이 오랜 력사적과정에 점차 말소리가 바뀌여 김치로 되였다고 한다.

나라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선조들은 남새를 가을에 많이 저장하여 겨울철은 물론 늦은봄까지 오래 두고 먹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창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를 담그는것이였다.

김치를 언제부터 담그기 시작하였는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13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리상국집》에 무우를 소금에 절여 동지에 준비한다는 기록과 남새가공품을 저장하는 《료물고》라는것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고려시기에 널리 진행되였음을 알수 있다.

《해동죽지》나 《동국세시기》에는 집집마다 무우와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데 갓, 생강, 파, 마늘, 고추가루 등을 무우, 배추에 버무려 담가서 땅을 파고 묻는데 이것이 가정의 1년중의 큰일이라고 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김치담그기풍습은 오늘도 가정의 1년중의 큰일로 사람들의 생활에 년년이 전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음식의 자랑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조선김치가 현대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우리 나라 김치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에서는 비타민이 풍부한 민족음식인 김치가 온갖 질병을 막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있다, 김치는 절인 배추로 만든 독특한 음식이다, 많은 량의 김치섭취는 여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게 한다, 조선사람들의 식탁에 반드시 오르는 김치에는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광물질들이 함유되여있다고 전하였다.

비타민과 광물질의 중요한 공급원천으로 되고있는 김치, 남새가 바른 겨울철에는 비타민을 정상적으로 섭취할수 있게 해주어 좋고 밥, 고기, 물고기와 같은 산성식료품에 대한 식욕을 높여주어 좋으며 체육인들의 카로리소모를 막아주어 좋은 김치, 바로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만든 민족음식, 장수식품이다.

진정 건강음식, 장수식품으로 우리 식생활문화의 명물로 자랑높은 조선김치는 비록 하나의 식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그대로 깃들어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풍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지향이 비껴있다.

그뿐인가. 김치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량속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겨울김치를 담글 때면 이웃들과 친척들이 한데 모여 배추를 절구고 씻는것으로부터 양념소를 만들고 독에 날라다 넣으며 김치움을 파는것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는 미풍이 있었다. 그리고 매 집에서 만든 김치나 양념을 이웃이나 친척집들에 보내여 서로 맛을 보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얼마전에 목격한 일이 떠오른다. 우리가 취재길에 신의주시에 살고있는 리덕실영예군인의 집에 들어서니 방금 한 녀성이 소반에 먹음직스런 김치를 올려놓고있었다. 그는 며칠전에 담근 써레기가 맛이 들었다며 영예군인부부에게서 들어보라고 하였다.

청송동에 산다는 한숙이라는 그 녀성은 5년전부터 영예군인가정과 원군길을 함께 걸으며 혈육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그날도 그는 신의주시 채하초급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영예군인가정을 찾아왔던것이였다.

《우리 집 김치도 미연이 엄마가 와 담그었는데 뭘 또 이렇게 들고오나?》

리덕실영예군인의 말이였다. 알고보니 한숙녀성은 해마다 김장철이면 영예군인가정의 김장을 도맡아해주군 하였다. 그의 딸 미연이가 가져온 고구마며 콩나물찬도 밥상우에 올려놓았다. 민족의 향기가 풍기는 소박한 음식상이였다. 하지만 거기에서 풍겨오는 향기는 얼마나 그윽한것인가.

하나의 음식상에도 우리의것을 제일로 여기며 식생활을 꾸려가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비껴있고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풍모가 소중히 어려있으니. 이것이 바로 자기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비껴있는 가정의 향기, 우리 민족의 향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계절의 풍경은 더더욱 향취를 돋구는것이리라.

우리의 향기, 우리의 멋,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이 차넘치는 김장철풍경은 정녕 이 땅의 가을에만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고 대대로 전해질 우리 민족의 풍습인것이다.

글 본사기자 오은별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안악군 읍협동농장 한창길동무의 가정에서

우리의 토장 그저 그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통적인 민족음식과 식생활풍습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사회주의적식생활풍습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 집 음식맛은 장맛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장맛이 좋아야 음식맛도 좋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녀자들의 일솜씨와 재주에서의 기본은 바느질과 함께 장담그는 솜씨라고 하였다.

《장이 달아야 국이 달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녀자집의 장맛보고 색시감을 얻어라.》 등의 속담만 보아도 우리 인민이 식생활에서 장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안악군 읍협동농장 기사장 한창길동무의 가정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얼마전 우리가 한창길동무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가을철의 농촌집이라고 하지만 알뜰하게 정리된 뜰안에 들어서니 저도모르게 안주인의 음식솜씨가 여간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그 집 웃방에는 큼직한 메주덩이들이 벽체를 따라 주렁주렁 매달려있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이채로운 풍경이였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흥미가 당겨 한창길동무의 안해 임국화동무와 마주앉았다.

알고보니 안주인 임국화동무는 메주를 담그어온지가 거의 20년이 되였다. 그가 시집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집의 음식맛은 장맛이라고 하면서 장을 담그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대체로 가정에서는 해마다 음력 9월이나 10월 즉 립동을 전후로 하여 메주를 쑤는데 그것을 몇달 잘 띄운 다음 2월이나 3월에 찹쌀과 길금가루, 고추가루 등을 같이 넣어 담근다는것이다. 좋기는 우수에 메주장을 담그어야 하는데 그것은 춥고 서늘하며 곤충이 나오지 않을 때 장을 담그어야 맛이 좋고 벌레가 생기지 않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올해에도 한창길동무의 가정에서는 분배받은 콩으로 메주를 쑤었다고 한다.

임국화동무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름에는 장을, 겨울에는 김치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으로 여기였다고 하면서 국을 끓일 때 장을 넣으면 그 맛이 참 구수하다고, 특히 고추장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별맛이지만 여름철에 풋고추나 풋마늘을 찍어먹는 맛은 이를데 없어 더위로 밥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좋은 식욕촉진제로 된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마을에서도 장을 담그는 솜씨에서는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는다더니 임국화동무의 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아무리 맛좋은 고기국이라도 몇끼만 련거퍼 먹으면 물리여 먹지 못하지만 된장국은 전혀 물리지 않으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현명했는가라는 그의 말에 우리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이지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손꼽히는 식품인 장은 우리 민족의 자랑중의 자랑인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끝내려는데 동네 한 녀인이 임국화동무를 찾아왔다. 메주를 쑤는것을 봐달라는것이였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손맛이 음식맛이라 하지만 그 손맛은 고운 마음에서 생기는거랍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세상에 없는 장수식품인 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총명함과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결정체이라는것을.

본사기자 홍성철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의상은 아름답고 고상한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갈을 가지고있는 조선옷은 매우 우아하고 소박하다.》

이즈음 모란봉과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수도의 경치좋은 곳들에서는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들과 더불어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한 신랑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평양민속공원 강사 리명옥동무는 올해에 들어와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하고 이곳을 찾는 신랑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들과 나란히 우리 민속공원정문으로 들어서는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신랑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얼마나 의젓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선바지저고리가 신랑들의 인끔을 훤하게 돋구어 그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생활풍습이 반영된 조선바지저고리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짙게 비낀 말이였다.

어찌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들뿐이랴.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가한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군중들도, 1만명 대공연에 출연한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배우들의 모습들도 그 얼마나 멋이 있었던가.

그 형태와 색갈, 무늬장식에 있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는 사람들의 인끔을 한껏 돋구어주는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적인 민족옷이다.

민족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통적인 민족옷을 발전시키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조선옷차림을 적극 장려하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풍습과 전통, 미적감각을 잘 알고 옳게 살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의 감정과 기호, 체질적특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독특한 남자옷차림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력사가 유구하고 입기 편리하며 색갈 또한 고상한 조선바지저고리는 당의 손길아래 오늘 그 형식과 모양새가 더욱 다양해지고 널리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옷차림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올해에 있은 제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자랑—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옷》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대체로 조선치마저고리가 많이 전시되였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남자들의 기본민족옷차림인 바지저고리와 조끼, 두루마기와 같은 여러가지 민족옷들이 많이 출품되여 인기를 모았던것이다.

오늘 각지에서 전통적인 조선바지저고리를 민속명절이나 국가적기념일, 생일날이나 결혼식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즐겨입을수 있도록 새로운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랑 조선바지저고리는 앞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과 더욱 친숙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모란봉구역종합식당 강냉이전문식당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음식봉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모란봉구역종합식당 강냉이전문식당을 찾은것은 며칠전 일요일이였다.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개선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식당은 휴식일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로 더욱 흥성이였다. 특색있는 불장식에 고전미가 나는 벽체며 독특한 형식의 천정으로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가 잘 어울리는 식당에서는 정춘희, 전연옥, 김성옥동무들을 비롯한 산듯한 봉사복차림의 접대원들이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어가며 손님들에게 강냉이음식을 봉사하고있었다.

밭이 가늘고 윤기가 도는 강냉이국수, 양배추김치와 풋고추, 고구마잎줄기, 미역줄기, 버섯볶음과 삶은 닭알 등으로 고명을 얹고 그릇에 사리여 담은 솜씨 또한 독특하여 눈맛, 입맛 다 좋은 강냉이국수가 손님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피워주고있었다.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면 맛있는 강냉이국수를 맛볼수 있다기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말이구만.》

식탁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해주었다.

수려한 모란봉에 아름다운 민족적정서와 향기를 피워올리는 노력가들의 모습을 우리는 식당주방칸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환경이 깨끗하고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주방칸에서는 주방장 박은숙동무와 리춘영, 리영옥, 방명희동무들을 비롯한 료리사들이 발이 가늘고 구미가 동하는 국수오리를 연방 건져내고있었다.

강냉이국수뿐이 아니였다. 강냉이찐빵이며 강냉이지짐, 강냉이즙을 넣어 만든 가지가지의 료리들이 식당의 향취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우리와 만난 식당책임자 배춘희동무는 식당에서 강냉이음식봉사를 시작한지 1년도채 되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단골손님들의 수는 늘어만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지금처럼 봉사자된 긍지를 한껏 느껴본적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활짝 꽃피워주는 당의 은정이 아니고서야 우리 식당에 넘쳐나는 웃음꽃을 어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의미깊은 말이였다. 인민들에게 나날이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어 이곳 봉사자들이 강냉이국수를 비롯한 강냉이로 만든 민족음식을 전문으로 봉사하기 시작한것은 지난 봄부터였다.

비록 길지 않은 나날이였다. 그러나 그 나날들에 민족음식에 대한 수요로 늘어만 가는 손님들을 대하면서 민족음식을 더욱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한 배춘희동무와 종업원들이였다.

이곳 봉사자들이 해마다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전국적인 료리축전과 여러 료리기술경연들에 참가하여 받은 수십개의 상장과 메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손님들의 얼굴마다에 피여나는 기쁨의 물결을 안아볼수 있었다.

어찌 그뿐이랴. 식당의 종업원들은 봉사자의 긍지높이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봉사도 잘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참으로 크지 않은 식당에 꽃피는 민족적정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민사랑의 은정속에 날에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울려퍼지는 생활의 노래를 뜨겁게 들을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손님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가 제일!

본사기자 신현규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신천의 웨침—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신천박물관을 찾아서(4)

인간에게 있어서 신념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더우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념은 생명과도 같다. 우리는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 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 죽는것이 혁명가의 참된 인생이며 그런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것을 신천박물관의 전시실—12를 통해서 더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도 끈을 굽히지 않는 참대처럼 불에 타 죽을지언정 자기의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전시실—12에는 전 황해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룡진동지를 비롯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원쑤들과 굴함없이 싸운 황해도와 신천군 일군들의 투쟁자료가 전시되여있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도내당원들과 인민들의 후퇴조직사업을 끝내고 뒤늦게 구월산으로 들어가던 리룡진동지는 뜻밖에 조우한 적들과 결사전을 벌리다가 그만 놈들에게 체포되게 되였다. 그를 사형장으로 끌어낸 원쑤놈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화국정부가 나쁘고 미국이 좋다는 선전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였다.

최후를 앞둔 리룡진동지는 강제로 끌려나온 인민들을 향해 이렇게 웨쳤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싸운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영원토록 무궁할것입니다. 동무들, 청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세를 부르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당황망조한 놈들은 그를 전주대에 목을 매달고 집중사격을 퍼부어 학살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적절개를 끝까지 지켜 빛나는 최후를 마친 리룡진동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시고 그의 고향을 룡진리로 부르도록 하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실에 펼쳐진 리룡진동지의 최후를 보여주는 반경화와 랍상을 돌아보았다.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두손을 높이 쳐들고 《김일성장군 만세!》와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혁명적신념과 지조는 철쇄로도 묶을수 없으며 사상이 투철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참관자들은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견결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다음전시실로 향하였다.

전시실—13, 전시실—14에는 고향땅을 지켜 용감히 싸운 구월산인민유격대, 지남산인민유격대의 투쟁자료와 미제침략자들이 신천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인간살륙만행을 온 세계에 폭로규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그리고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국제단체들과 인사들이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준 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신천박물관의 마지막전시실에서 참관자들은 신천의 교훈은 무엇이며 이 땅에서 신천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자각할수 있었다.

당시 썩은 새끼줄에 묶이운채 원쑤놈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자료들은 참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숱한 사람들이 철쇄나 바줄도 아닌 새끼줄에 묶이우고도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고스란히 죽음을 기다린 신천의 비극,

《설마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는 그 〈설마〉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가슴이 터진다.》

전시실에 전시된 신천학살의 목격자인 신천군 백석리 윤순옥의 이 고백은 참관자들에게 원쑤들에 대하여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기본무기인 사상의식이 마비되면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는 진리를 더 굳게 심어주었다.

박물관의 전시실들에 이어 전신천군당방공호와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를 돌아본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하며 신천의 원한을 피로써 갚고야말 멸적의 의지를 안고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한 후 신천박물관을 나섰다.

* *

신천의 비극이 있은 때로부터 장장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할수 없는것이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이고 복수심이다.

신천의 한,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고야말리라는것을 확증해보이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솟아오른 신천박물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웨치고있다.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자!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변하지 않는 땅

수산리계급교양관을 돌아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날날이 폭로하는 수산리!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계급교양관에 들어선 우리들은 전시된 자료앞에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살인귀들과 《치안대》놈들은 악질빨갱이들의 씨종자까지 말려야 한다고 지껄이며 면위원장부터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 《처단자》명단을 만들고 면과 리안의 백수십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그 가족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당시 백운리 세포위원장 오영수와 그의 가족이 처참하게 학살된 자료 하나만으로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소스라치게 느낄수 있었다. 놈들은 오영수위원장의 머리를 도끼로 두동강내여 죽이고 그의 안해는 목화씨를 뽑는 도구로 머리가죽을 벗기고 불에 달군 인두로 배를 찔러죽였다. 또한 7살, 5살 난 그의 아이들도 가슴과 발바닥에 대못을 박아 무참히 죽였다. 그리고는 그 시체들을 다시 도끼로 토막내여 개울가를 건느는 징검돌밑에 깔고 마을사람들에게 그우를 지나가도록 강요하였다.

원쑤들은 그 어떤 동정이나 아량도 없었다. 인민군대후방가족이라고 죽였고 열성농민이라고 또 죽였다. 온 일가친척을 생매장했고 로인, 아이, 유부녀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죽였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극악한 살인도구로 귀축같이 죽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으로 퇴각하게 되자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은 《치안대》본부로 도장만 가지고오면 확인을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놈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찾아온 4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창고에 가두어넣고 도망치기 전날 밤 모두 불태워죽이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가.

어찌하여 이 살인귀들은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가장 야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면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는가.

온 수산땅을 피로 물들인 살인마들의 죄행을 보여주는 반경화는 단순한 미술작품이 아니였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하지 않는 땅의 절규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하는 력사의 고발장이였다.

환상이 죽음을 가져왔다. 적들과는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이발로 물어뜯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사상적각오가 없은탓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했던가.

우리는 치솟는 적개심으로 이를 갈며 4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앞에 섰다.

해방된 내 나라에서 행복이란 말을 처음 알았던 사람들이, 주인된 새 땅에 씨앗을 뿌리고 땀을 묻던 그처럼 근면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억울하게 숨져 이곳에 묻혀있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그 령혼들, 그들의 넋을 품어안았다. 그들의 복수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다.

미제와의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제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계급의 총대를 더욱 굳건히 잡으라.

바로 이것이 65년전의 수산리의 웨침이였다.

우리는 이들의 몫까지 합쳐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맹세를 안고 수산리를 떠났다.

전혜영

세계적피난민대란은 미국의 특대형반인권범죄의 산물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오늘 사상최대의 피난민위기가 세계를 휩쓸고있다.

최근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피난민수가 6,000만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5년전에 비해 1,630만명 더 늘어난것으로서 최고의 기록으로 되며 72억명이 넘는 세계인구가운데서 약 120명당 1명이 피난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1세기에 전대미문의 피난민위기가 발생한것은 사회적진보와 인류문명발전사에 또 하나의 비극이다.

미국의 간섭과 정부전복책동으로 벌어진 류혈적인 전란속에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수천수만의 피난민들이 태를 묻고 자란 정든 고향과 조국을 눈물속에 돌아보며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다.

참혹한 운명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정체, 피난민위기의 장본인으로서의 범죄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세계적인 대참사—피난민위기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엄혹한 피난민사태에 직면하고있다.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있는 속에 수리아와 이라크에서는 1,500만명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난 1년간 예멘에서의 피난민수는 100만명에 달하였다.

리비아에서는 올해 상반년기간에만도 43만 4,000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남부수단에서도 82만명이상이 한지에 나앉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유럽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고있다.

10월 한달동안에만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지난해 피난민수보다 더 많은 21만 8,000여명이 지중해를 건너갔다.

올해에 들어와 11월 중순현재까지 유럽으로 넘어간 총 피난민수는 거의 100만명에 달하고있다. 그중 60만여명이 그리스에 몰려있다.

도이췰란드에는 9월에 하루평균 1만 2,200여명의 피난민이 밀려들었다.

올해초부터 유럽에 들어간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50만 2,000여명의 피난민들이 그 로상에 있다고 한다.

여론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것처럼 유럽으로 사정없이 흘러드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타향에서 또다시 타국으로 쫓겨가는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매일 헤아릴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생결단으로 피난의 길을 택하고있지만 그들을 기다려주는것은 결코 그 어떤 평온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니였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매군들의 회유에 속아 다 낡아빠진 밀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여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지난 4월 18일 피난민들을 싣고 리비아를 떠나 이딸리아로 가던 선박이 침몰되여 한꺼번에 800여명이 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수백명의 이주민들이 탄 배안에서 40명이 질식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뛰르끼예부근의 지중해해변가에서는 3살난 피난민가족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피난민수는 올해에 들어와 10월말까지 3,320여명에 달하였다.

하기에 피난민들속에서 지중해를 통한 유럽행이 《무덤에로의 길》, 《죽음의 길》로 불리우고있다.

유럽땅에 가까스로 발을 들여놓은 피난민들의 처지도 결코 죽은 목숨과 다를바 없다.

그들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는 유럽나라들의 의도적이고 로골적인 인권유린행위로 말미암아 참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일부 유럽나라들에서는 한심한 수용시설들에 피난민들을 집결시켜놓았다가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있다. 어떤 정당들에서는 이주민배척을 주요강령으로 내세우고있는 형편이다.

영국은 지난 8월부터 런던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건설장과 개인집청소회사 등 피난민들이 발붙일수 있는 곳들에서 검열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난민을 받아들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2만£의 벌금을 물리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있다. 정부의 고위관리들속에서 피난민들을 《불법이주민무리》, 《도적들》이라고 꺼리낌없이 모욕하는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이 200건이상 발생하였고 오스트리아의 고속도로상에 버려진 랭동차안에서는 70여구의 피난민시체가 발견되였다.

피난민들을 짐짝처럼 차량들에 실어 강제이송하고 경찰들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듯이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장면, 아이를 안고 달리는 피난민남성을 발로 걸어차 넘어뜨리는 장면 등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한 사진들과 록화물들이 신문과 텔레비죤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살길을 찾아 정처없는 류랑길에 나선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인류는 세계적인 참사로 번져지고있는 피난민문제를 시급히 해결할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있다.

천추에 용납 못할 피난민사태의 주범은 누구인가

피난민사태는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미쳐날뛰는 미국의 패권주의적간섭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피난민행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은 외세의 집요한 간섭과 파괴암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지역나라들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사회적안정이 혹심하게 파괴된것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예멘등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쳐 모든것이 황폐화되고 전란을 겪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피난민대국, 피난민원천국으로 전락되였다.

미국의 침략전쟁은 세계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피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내몬 주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세계는 이미 피난민문제가 전쟁의 필연적후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산물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두차례에 걸치는 세계대전을 통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미국은 1945년부터 1980년대초까지 세계도처에서 조선전쟁을 비롯하여 무려 백수십차의 국부 및 지역전쟁, 군사적침략과 간섭책동을 감행하였다. 그 과정에 조선에서 수많은 《원자탄피난민》을 산생시켜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들씌우는 등 국제적판도에서 반인륜범죄를 덧쌓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온갖 명분을 내대고 실로 많은 전쟁을 일으켜 전대미문의 피난민사태를 몰아왔다.

9.11사건을 기화로 미국이 개시한 《반테로전》은 주권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이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등 《반테로전》의 피해자들이다, 2001년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라고 폭로하였다.

로씨야의 스뿌뜨니크방송은 《9.11사변이 되풀이되고있다. 그리고 자신이 문명세계에서 살고있다고 믿던 사람들은 지난 15년동안 잘못된 반테로전을 해왔음을 깨달아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호상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여 피난민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라크에서도 미군강점후 2007년 한해동안에 127만명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이주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이 《반테로》의 명분으로 감행하는 수리아에 대한 공습은 전례없는 피난민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수리아는 지금 세계최대의 위기를 겪고있으며 400만명의 수리아인들이 피난의 길을 찾고있다.

이 나라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고있는것은 테로조직들을 극구 지원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 의해 초래된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은 수리아에서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소탕한다고 떠들어대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반정부세력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주면서 그들이 무력으로 아싸드정권을 전복시키도록 충동질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아인민은 4~5년동안 도탄속에서 헤매이게 되였으며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그 누구의 승인도 요청도 없이 수리아를 마구 공습하고있는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의 련속이며 그 확대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이 감행한 전쟁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제창하는 《인권옹호》는 추악한 위선과 기만적인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죄하고있다.

미국이 전쟁과 함께 세계제패를 위한 2대기둥으로 삼은 《색갈혁명》은 피난민위기를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원으로 되고있다.

《색갈혁명》은 전세계를 서방화하며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뜌니지, 에짚트, 리비아,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은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반정부소요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들을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키고 무기와 자금까지 대주었다.

한 중동문제전문가는 2011년의 《아랍의 봄》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란은 지역나라들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의 피난민수가 매해 3,800만명안팎이였던것이 2011년에는 4,000만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불과 3년만에 40%가 증가된 5,950만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피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한것은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곳곳에서 크고작은 내전들이 일어나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아랍의 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나라들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들을 류혈적인 민족간, 종족간 분쟁과 무정부주의적인 혼란, 무질서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으며 오늘의 피난민대란을 초래하였다.

유럽으로 가는 피난민들의 집결처, 출발지로 되여버린 리비아의 현실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미국과 서방의 간섭으로 가다피정권이 전복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리비아에서는 피난민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미국이 서방과 함께 리비아의 반정부세력들을 내세워 《색갈혁명》을 추진시키고 군사적개입으로 가다피정권을 붕괴시킨 후 이 나라는 극도의 정치적혼란속에 빠져들어 피난민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국가존재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감행된 침략전쟁과 《색갈혁명》은 수많은 나라들의 붕괴와 파괴, 극도의 혼란과 피난민위기를 낳은 화근으로 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유엔총회 제70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벌둥지처럼 발칵 뒤집혀져 수십만명의 피난민이 쏟아져나오고있는 중동의 험악한 사태를 놓고 서방나라들에 《당신들이 무슨짓을 하였는지 아는가?》라고 질타하였다.

미국이 벌린 무수한 침략전쟁과 간섭책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피난민위기는 산생되지조차 않았을것이며 세계는 그토록 험악한 재난을 겪지 않아도 될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세계적피난민대란을 몰아온 미국의 특대형반인권범죄의 진상이 있다.

미국에 대한 환상과 추종은 자멸의 길이다

미국이 피난민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이라면 피난민이 발생한 나라들은 미국의 포악하고도 교활한 지배주의적간섭과 모략의 검은 마수를 물리치지 못한 나라들이다.

미국이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반테로》, 《인권옹호》 등 허울좋은 구실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지만 많은 나라와 민족은 완강히 맞서 싸우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롱락당하고있다.

류혈적인 동족상쟁의 비극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 운명을 기약할수 없는 피난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나라를 잃고 집도 잃은 피난민들에게 차례지는것이란 오직 가혹한 천대와 멸시, 치욕과 죽음뿐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미국은 세계의 주인도, 세계평화의 구세주도 아니다, 력사적사실을 놓고보아도 미국의 간섭의 마수가 가닿은 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재난만이 빚어졌다고 절규하고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 인민들은 외세의 간섭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수 없으며 매개 나라의 장래와 운명은 마땅히 그 나라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때늦게나마 깨닫고있다.

노아의 홍수와도 같이 밀려드는 피난민들로 혼란에 빠진 유럽의 실태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추종은 곧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유럽은 주대없이 미국의 기만적인 《반테로》, 《색갈혁명》장단에 춤을 추며 공모해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로부터 초래된 피난민위기로 말미암아 나라들사이의 외교적마찰이 심화되고 지어 유럽동맹의 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있다.

도이췰란드와 영국에서 당국의 피난민정책을 비난하는 반정부시위들이 련일 계속되고있으며 뽈스까와 체스꼬, 슬로벤스꼬에서는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피난민들은 제집으로 돌아가라.》고 웨치면서 항의시위를 벌리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난민들을 《공평하게 할당》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나라들은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항변하며 반대해나서고있다. 이로하여 서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표면화되고있다.

영국인들속에서는 유럽동맹으로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이 나라 신문 《메일 온 썬데이》는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피난민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도이췰란드가 피난민류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벨지끄, 룩셈부르그와의 국경지역에서 검열제도를 재도입하고 프랑스, 네데를란드도 국경검열제도를 재가동시킴으로써 유럽의 통합을 안받침해주고있는 《쉔겐협정》(유럽동맹나라들사이에 국경검열제도를 폐지하고 사증없이 주민들의 려행을 보장하는 협정)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유럽동맹이 금융위기에 이어 전례없는 피난민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꿈이 깨여져가고있는것을 시시각각 느끼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최근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들고있는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들에서 정치제도를 교체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위로 하여 초래된 결과이라고 폭로하였다.

사상최대의 피난민들을 산생시킨 중동과 북아프리카나라들의 현 실태, 《민족의 대이동》과도 같은 피난민사태로 아비규환이 된 유럽나라들의 진통은 자기의 똑똑한 주의주장이나 주대도 없이 미국에 굴종하면 나라는 물론 민족의 전도와 미래까지도 망치고 파국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철리를 력사에 새겨주고있다.

지금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피난민위기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며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러나 인류가 겪고있는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 가도 해결될수 없으며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

피난민문제해결의 핵심은 바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왕초,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을 단호히 징벌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망국노의 운명, 피난민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오늘의 피난민대란은 인권은 국권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 인권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 어떤 압력과 회유에도 굴할줄 모르는 힘과 확고한 자주적대를 가질 때에만 나라도 지킬수 있고 인민의 참다운 인권도 담보할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인류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오는 인권범죄의 주범인 미국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주체104(2015)년 11월 25일
평 양

평화협정체결은 조선전쟁을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도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쏘꼬호 고메스가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하여 1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60여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마련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반동적인 행위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리면서 추종세력인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며 동시에 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려는 립장을 거듭 밝히였으나 미제의 간섭과 그에 추종하는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의 반통일적망동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는 조선과 미국이 하루빨리 종전의 정전협정을 페지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이 자기의 정책을 대담하게 바꾼다면 조선과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미국이 성실한 자세를 보일것과 조선반도에 대한 간섭을 철회할것을 촉구한다.

* *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가 신문 《오라도 뽀보》 18일부에 《조선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미국에 촉구》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하여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다.

1953년에 중지된 조선전쟁을 종국적으로 끝장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며 전쟁을 바라지 않는 국제공동체의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최선의 방도로 된다.

정전협정은 북과 남사이에 체결된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전략적지역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저들의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과 위협, 경제제재를 계속할것을 고집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사회주의조선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속심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인민의 격분을 자아냈다.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시책동이 계속되는 한 나라의 방위와 자주권, 령토완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로씨야대통령 이란을 방문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23일 이란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와 만나 담화를 하였으며 대통령 하싼 루하니와 회담을 진행하였다.

담화와 회담에서는 쌍무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테로반대투쟁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방문과정에 보건, 에네르기, 경제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문건들이 조인되였다.

유엔의 부당한 인권결의안 규탄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21일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이란인권결의안이 채택된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는 그 결의안이 인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인권보호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인권기록만을 가진 나라들에 의하여 조작된데 대해 개탄하면서 이란은 인권문제가 그러한 나라들의 근시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도구로 리용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유엔이 인권문제처리에서 현실을 똑바로 가려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사용을 통한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신성불가침의 원칙들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극단주의세력에 맞서나갈것을 호소

말레이시아수상이 21일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극단주의세력에 맞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된 극단세력들의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야만적인 테로분자들은 그 어떤 종교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의 이름을 모독하는 새로운 악을 반대하는 투쟁에 합세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국방성 대변인이 최근 수리아에서의 로씨야군의 군사활동과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하였다.

최근 미국무성 대변인이 수리아에서 로씨야항공대가 진행하고있는 공습의 대부분이 테로분자들을 소멸하는데 돌려지는것이 아니라고 떠들어댄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근거한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로씨야항공대는 명백히 테로분자들의 하부구조대상들을 타격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벨라루씨에서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가 6일 취임식에서 자기 나라는 이웃나라들과 평등하게 협조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벨라루씨련맹국가건설을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서방은 제재로 벨라루씨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에서

수리아정부군이 최근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전과를 올리고있다. 최근 정부군은 테로분자들과의 여러 전투끝에 알레뽀시의 북부지역과 소도시들인 살라미예흐, 아이트라이야, 하나세르로 오가는 보급로를 탈환하였다. 이 나라의 사나통신은 정부군이 이 전투들에서 테로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전하였다.

팔레스티나에서

팔레스티나외무성이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을 유태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유태화책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티나인들이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핵제패야망실현에 미쳐날뛰는 미국호전광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미국의 기만적인 정체가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신형장거리폭격기 《B-3》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노스로프 그라만군수독점회사에서 개발하게 될 이 폭격기는 무인조종체계를 갖추고 상용무기는 물론 핵무기도 운반할수 있는 전략폭격기이다.

국방성은 앞으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도입된 신형폭격기 개발을 다그쳐 100대의 강력한 폭격기비행대를 구축하려 하고있으며 계획실현에 총 800억US$를 탕진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신형폭격기개발은 핵우세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끊임없는 핵제패야망의 발로로 된다.

미국은 신형폭격기로 현재 있는 전략폭격기들을 교체하려 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공군에 장비되여있는 《B-52》핵전략폭격기는 자기의 수명을 다한지 오래되였으며 《B-2》스텔스전략폭격기들은 20년이상 비행하였다고 한다.

미국호전광들은 세계의 곳곳에 벌려놓은 전쟁마당에서 이미 써먹을대로 써먹은 이 무장장비들을 대신할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개발하여 세계에서 저들의 군사적우세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형장거리전투폭격기는 앞으로 공군의 핵공격수단들의 중추를 이루게 될것이라고 떠벌였으며 폭격기제작관계자의 한사람인 로렌 톰슨은 미국이 전략폭격기들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을것이라고 줴쳤다.

오바마행정부는 신형장거리폭격기가 미국의 군사적우세를 유지하는데서 사활적이라고 하면서 그 개발을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말끝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미국집권자의 기만적인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으며 세계평화와 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핵제패야망실현에 광신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AP통신은 신형폭격기개발을 계기로 국방성의 핵무력현대화계획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올라섰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전략폭격기뿐아니라 핵미싸일을 탑재할수 있는 잠수함들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함하여 핵무력전반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미국회예산국은 앞으로 10년남짓한 기간에 핵무력을 갱신하는데 3 480억US$가 지출될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30년이 지나면 그 액수가 1조US$에 달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무기통제협회는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는 당국의 핵무력현대화계획은 현실적요구를 초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앞에서는 세계의 《비핵화》를 떠들면서 뒤에서는 핵제패야망실현을 위해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핵위협, 핵군비경쟁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변함없는 핵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무모한 핵무력현대화책동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는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는 극악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핵제패야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스스로 고립과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 미싸일요격시험 감행

미국이 1일 미싸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다.

이날 태평양상에 위치한 웨이크섬부근 상공에서 미군수송기로부터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싸일을 목표로 고고도미싸일방어체계인 《싸드》가 요격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미국의 무모한 미싸일요격시험책동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유태인정착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동부꾸드스에 400여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최종승인하였다 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는 팔레스티나인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186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